

‘민식이법’ 통과...스쿨존 부실 ‘수두룩’

광양지역 초교 81% 표지판 등 운전자 식별 어려워 정인화 “사고위험 높아 전수조사·개선 등 서둘러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스쿨존 교통표시 등이 관리 부실로 알아보기조차 힘든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지역의 경우 스쿨존 21곳 중 17곳의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정비가 시급하

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성동구, 울산 남구, 광양지역 등 49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학로 안전점검에서 65.3%에 달하는 32곳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또 81.6%에 해당하는 40곳은 스쿨존

진입을 알리는 표지판과 도로 위 스쿨존 표시(노면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 스쿨존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시작점에 표지판과 동일선상에 설치돼야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불일치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확한 보호구역 인지를 어렵게 만들고 사고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도 49개 초교 중 31곳(63.3%)에서는 차량 운전자 스쿨존을 주행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가 없었다. 또 스쿨존 노면표시의 경우 제한 속도를 함께 병기해야 한다는 지침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스쿨존이 37곳(75.5%)에 달했다.

표지판이 주변 가로수나 건물에 가려져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문제된 사례도 서울 성동구는 14개소 중 9개소(64.3%), 광양시는 21개소 중 17개소(81%)나 됐다.

정 의원은 “일부 지역의 스쿨존만 점검했는데도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할 지역 스쿨존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6 해질 17:24
달돋이 00:53 달질 13:28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감기 조심하세요)
- 빨래 50 (실내 건조 좋아요)
- 세차 60 (급하지 않으면 마루세요)
- 운동 7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20-30	목포	08:26	01:18
목포	20-30	목포	21:00	13:37
순천	20-20	여수	03:35	09:30
여수	20-20	여수	15:57	22:22

서해 남부 (동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서-북/0.5-1.5m
오전	먼바다	북서-북/1.0-2.0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1.0m
오후	먼바다	북서-북/0.5-1.5m

남해 서부 (동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서-북/0.5-1.0m
오전	먼바다	북서-북/1.0-2.0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1.0m
오후	먼바다	북서-북/1.0-1.5m

주간날씨

12월	21/토	22/일	23/월
전라(광주)	☁ (-2/7)	☁ (0/10)	☁ (1/11)
서울경기(서울)	☀ (-5/5)	☀ (-1/7)	☀ (0/6)
강원영동(강릉)	☀ (-1/9)	☀ (2/8)	☀ (3/9)
충청(대전)	☁ (-5/6)	☁ (-2/6)	☁ (0/8)
경상(대구)	☁ (-3/6)	☁ (-1/8)	☀ (-1/10)
제주(제주)	☁ (6/10)	☁ (9/13)	☁ (8/13)

▶ 날씨안내 : 국민염이31

광주SW교육지원센터 개소

광주SW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19일 장회국 시교육감과 교육위원,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SW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SW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18년 교육연구정보원 4층을 리모델링해 SW교육실과 로봇코딩실을 구축했으며, 올해 메이커실, SW교육실, 드론코딩실 및 AR/VR체험실을 추가로 구성하고 이날 정식으로 개소했다.

SW교육지원센터는 초등 6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체험 프로그램과 수요일 방과 후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방학 중 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한 SW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SW교육과 연계해 교구 대여 사업을 함께 진행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마을 소망담은 엮서 달아요 19일 오후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공동체사업 성과공유 '마을 공감 페스티벌'에 참가한 주민들이 마을 소망트리에 소원 엮서를 달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378억 청사 리모델링 비용’ 남구청 책임”

감사원 최종 결론...원금·이자 부담 등 가중될 듯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광주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남구는 리모델링 원금 301억원과 매년 불어나는 수십억원대 이자를 2034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7월 남구가 요청한 청사 이전 비용 감사에 대한 제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고 각하 결정했다.

감사원은 남구 청사 리모델링(위탁개발) 비용 350억원의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최종 감사 결과는 제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구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한때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개발원금 301억2천여만원과 이

자 48억9천여만원 등 350여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상환해야 한다.

캠코가 청사 내 상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8억8천여만원 규모의 적자도 남구가 보전해줘야 한다.

남구는 청사를 활성화해 비용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 계약이 해지된 입주 상인들이 상가 입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청사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관리 주체인 캠코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 상인들이 임대 공간을 빼줘야 다른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가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남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해 그동안 누적된 적자 비용 28억8천여만원을 우선 변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구 소유 재산을 판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상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광주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광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0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천여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이 광주시 영유아 부모의 ‘아이 키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는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천여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강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이 광주시 영유아 부모의 ‘아이 키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대, 복지부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

광주대학교가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지정하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19일 학교 백인관에서 ‘치매극복 선도대학’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광주 남구보건소 과은영 소장과 광주대 김경태 기획부처장, 광주대 간호학과 장미영 학과장을 비롯한 관련 학부(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치매극복 선도대학 지정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과 관심을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대는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 심리학과의 남구보건소와 남구치매안심센터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치매극복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 글로벌게임센터

게임을 통한 세대 간의 연결!

2017년 2월에 개소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실감미디어 인프라와 결합한 체험형 게임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남 게임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게임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시장진출 지원

- JNGC 글로벌 마케팅 / 게임 고도화 · 현지화 / 개별 마케팅 지원
- 전남 게임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전남 게임기업 보유 게임 콘텐츠 품질향상, 시장 최적화 지원
- 축제 연계 체험존, 문화행사 운영 통한 전남 게임산업 저변확대
- 호남권 게임전시회, 공동관 운영, 대외 홍보 통한 인지도 제고, 브랜드 구축

기업역량 강화지원

게임 제작지원

- 시장진출 제작 지원 / 지역 활용형 제작 지원 / 플랫폼 다변화 제작 지원
- 국내외 수요처 사전 확보형 체험형 게임 제작 지원
- 지역 내 게임 수요, 저변 확대 위한 지역 소재 연계 게임 제작 지원
- 게임 소비환경 대응, 기업 수익 다각화를 위한 플랫폼 다변화 제작 지원

게임산업 생태계 활성화

생태계 활성화

- 센터운영 / 게임 인재양성 / 네트워크 포럼
- 거점시설 / 테스트베드 / 장비 운영을 통한 기업활동 / 제작 인프라 지원
- 기업 · 교육기관 연계전문 / 실습교육 운영 통한 인력 선순환 기반 강화 지원
- 산학연관 전문가 협력 / 지원 체계 구축 및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